

출산 후 한 달, 복직을 앞두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마침 회사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해 보겠느냐는 제안이 왔다.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기회였기에 선뜻 응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아기를 두고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기가 어린데 벌써 복직해?”

“그래도 엄마랑 유대감을 쌓아야 하지 않겠어?”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다. 마치 복직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엄마답지 않은 선택인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남편이 들은 말은 나와는 정반대였다.

“아기가 태어났으니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

“아내가 육아휴직 쓰면, 당분간 가장 노릇 하느라 힘들겠어.”

아기를 누가 돌볼 것인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엄마인 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빠인 남편은 계속 일하리라고 모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니까 아이를 더 잘 알 테니,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누가 아기를 더 잘 보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남편을 꼽았으리라. 간호사인 남편에게는 작은 변화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일종의 직업병이 있었다. 아기의 체온을 잴 때도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호흡까지 함께 확인했고, 수유량과 수면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나는 아기가 오래 울면 그저 품에 안고서 이유도 모른 채 허둥지둥 댔지만, 남편은 기저귀와 수유 시간을 확인하고 배가 불편한지, 몸에 열이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덤병대는 나와는 달리 남편은 아기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남편의 품에 안기면 아기의 울음은 곧잘 잤아들었다. 남편의 직업적 경험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아기를 돌보는 능력은 엄마가 된다고 마법처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오래 지켜보고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었다.

“나 다시 일하고 싶어.”

남편은 잠든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대답했다.

“그래.”

너무 아무렇지 않은 남편의 대답에 오히려 내가 당황했다. 남편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내 복직을 지지했고, 아기를 걱정하는 내게 자신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의 응원에도 나는 여전히 망설여졌다. 내가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에 남편이 일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내 선택을 위해 남편의 경력을 희생하는 것 같았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는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아빠가 같은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어째서인지 ‘희생’이라 느껴졌다.

“요즘 남자들도 육아휴직 많이들 해.”

남편은 육아휴직은 대단한 결정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를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래도 갈팡질팡하는 나를 보더니 남편은 말없이 꼭 안아주었다. 괜찮다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조건을 하나씩 놓고 이야기했다. 각자의 근무 형태와 소득, 앞으로의 경력과 복직 시기, 아기 돌볼 수 있는 여건까지 따져보았다. 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었고, 남편은 나보다 아기를 돌보는 데 능숙했다. 성별이 아니라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하니 답은 오히려 단순해졌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가 먼저 회사로 돌아가기로 했다.

회사에 복직을 알리자, 주변에서는 남편이 많이 배려해준다고들 했다. 아빠가 육아휴직까지 쓴다며 대단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내가 육아휴직을 한들 누구도 남편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육아는 자연스레 받아들이면서, 아빠의 선택은 배려나 희생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니. 쓴웃음이 났다.

출근날 아침, 아직 잠든 아기의 얼굴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다. 분유 양이나 수유 시간을 알려주려다, 아차 남편이 나보다 더 꼼꼼하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언제 만들어두었는지 남편이 내민 종이에는 수유 기록표부터 하루 일정, 예방접종 날짜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머쓱해져서 웃음이 났다.

남편 역시 부모 중 한 사람으로서 아기의 하루를 판단하고 책임지고 있었구나.

직장에 도착한 뒤에도 틈만 나면 아기 생각이 났다.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다. 산책을 다녀온 아기가 유모차 안에서 잠든 모습이었다. 수유도 잘했고 열도 없으니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도 함께였다. 그제야 굳어 있던 어깨가 조금 풀렸다. 남편의 육아휴직이 시작되고서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다. 낮에는 남편이 수유와 낮잠, 산책과 병원 일정을 담당하고, 내가 퇴근하면 바통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서로의 피로와 다음 날의 일정을 살피며 목욕과 밤중 수유를 나눴다. 모든 일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가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육아와 집안일, 경력단절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해가기로 했다.

요즘은 육아휴직을 엄마만의 제도로 보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 부모 모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고 있고,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남성들도 증가 추세다. 우리 부부는 엄마라는 이유로 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고, 남편은 아빠라는 이유로 육아에 보조적인 역할만을 자처하지 않았다.

“대신 키우는 게 아니야. 나는 아빠니까, 내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

아이를 키우는 일도, 경력을 이어 가는 선택도 성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황과 강점을 존중하며 부모로서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닐까. 아기는 엄마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니까.